



안녕, 내 뻘뻘거리는 단어들 (7단계_중학)

뜨인돌 | 샤론 M.드레이퍼 글 / 최제니 옮김



표지 탐색하기

<안녕, 내 뻘뻘거리는 단어들> 책을 읽기 전에 책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앞표지 그림을 보며 책 제목 <안녕, 내 뻘뻘거리는 단어들>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해보세요.

⇒

2) 다음 문장을 보며 여러분의 단어는 몇 개쯤 될지 헤아려보세요

단어들.....
나는 수천 개의 단어에 둘러싸여 있다.
아니, 어쩌면 수백만 개쯤일까

⇒

3) 책 뒷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내 가슴 한곳에 산처럼 쌓인 단어들,
언제쯤 나는 이 단어들을 말할 수 있게 될까요?

가슴 속에 쌓인 단어 중 주인공의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는 무엇일지 3개만 써 보세요.

⇒



안녕, 내 뻘뻘거리는 단어들 (7단계_중학)

뜨인돌 | 샤론 M.드레이퍼 글 / 최제니 옮김



어휘력 키우기

<안녕, 내 뻘뻘거리는 단어들>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 ① 선생님은 엄마의 כות대를 꺾어 놓으려는 것 같았다.
- ② 굼벵이 같은 말투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이 하는 말이 더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다.
- ③ 앉으면 베게 위에 있는 것처럼 부드럽고 편안하다.
- ④ 수족관에서 본 복어처럼 퉁퉁 부어서는 가시까지 뽀족뽀족 돋았어.

1) 위 문장에서 밑줄 친 표현을 뜻은 같지만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써 보세요

- ① (예) 자존심을 상하게 하려는
- ②
- ③
- ④

2) 아래 어휘에 알맞은 뜻을 연결해보세요.

① 휠체어	•	•	㉠ 입력한 단어를 소리로 인식해서 바꾸어주는 기계.
② 메디토커	•	•	㉡ 루게릭병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물리학자.
③ 스티븐 호킹	•	•	㉢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앉은 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를 단 의자.

3) 위 2)에서 다른 어휘를 통해 알 수 있는 주인공의 상황을 써 보세요.

⇒



안녕, 내 빼꼼거리는 단어들 (7단계_중학)

뜨인돌 | 샤론 M.드레이퍼 글 / 최제니 옮김



내 빼꼼거리는 단어들

<안녕, 내 빼꼼거리는 단어들>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나는 H-5반 아이들을 모두 좋아하고, 우리 반 아이들 하나하나가 어떤지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 반에 나 같은 아이는 아무도 없다. 나는 문도 없고 열쇠도 없는 새장 안에 갇혀 사는 새다. 게다가 어떻게 하면 나를 새장에서 빼낼 수 있는지 누구에게 이야기해 볼 방법조차 없다.

(나) 우리는 온종일 그릇 안에서 빙글빙글 돌 뿐이었다. 나는 물고기가 잠자는 모습은 어떻게 궁금했다. 하지만 한밤중에 깨어서 보면 우리는 뭔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그 작은 입을 빼꼼거리며 헤엄치고 있었다.

(다) 처음부터 브이 아줌마는 내게 동정심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중략>

“너는 할 수 있어, 멜로디. 나는 네가 내 말을 모두 이해한다는 걸 알아. 너는 몸을 뒤집을 수 있어. 자, 한 번 해봐!”

<중략>

“멜로디, 만약 걷기와 말하기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무얼 고르겠니?”

(라) 단어가 적힌 카드들을 더 작게 만들어서 원래보다 더 많이 붙여 주었다. 판은 내가 아는 사람들의 사진과 이름으로 채워졌다. 내가 자주 하는 질문들과 다양한 명사, 동사, 형용사들이 붙여졌다. 덕분에 난 실제로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1) (가), (나)에서 멜로디가 자신을 새장 안 새나 어항 속 금붕어에 비유한 까닭을 쓰세요.

⇒

2) (다)에서 브이 아줌마가 멜로디를 대하는 태도를 보며 멜로디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

3) (라)에서 브이 아줌마가 멜로디가 자신의 말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운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



안녕, 내 뻘뻘거리는 단어들 (7단계_중학)

뜨인돌 | 샤론 M.드레이퍼 글 / 최제니 옮김



H-5반

<안녕, 내 뻘뻘거리는 단어들>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내가 학교에 다닌 지 2년 쯤 되던 해에 우리 반의 담임을 맡은 트레이시 선생님은 내가 책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는 CD에 담긴 오디오북을 준비해 주셨다. 처음에는 이미 네 살 때 아빠와 다 읽은 유아용 책이었다. 책을 두 번이나 바닥에 내팽개친 뒤에야 트레이시 선생님은 내게 별이 아니라 더 수준 높은 책을 주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중략>

문제를 알아맞히면 선생님은 아주 기뻐하면서 또 다른 책을 듣게 해 주었다. 그해에 나는 비벌리 클리어리라는 작가의 책을 전부 들었고, [화물 열차의 아이들]이라는 책도 모두 들었다. 정말 대단한 책들이었다.

(나) “이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항상 객관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 한 번만 더 이 아이들을 ‘이런 아이들’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땐 제가 소리를 지르고 말 거예요.”

엄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멜로디에게는 정신적, 육체적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빌립스 선생님이 말했다. 선생님은 엄마의 콧대를 꺾어 놓으려는 것 같았다. <중략>

빌립스 선생님은 우리 같은 아이들이 자기보다 여러 면에서 부족하니까 일을 하는 것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었나 보다.

H-5 학생들을 대하는 교사들의 모습을 보며 책 속에서 그들을 대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보세요.

	(가)	(나)
태도	㉠	㉡
이유	㉢	㉣
책 속 등장인물 중에서 고른다면	㉤	㉥



안녕, 내 뻐끔거리는 단어들 (7단계_중학)

뜨인돌 | 샤론 M.드레이퍼 글 / 최제니 옮김



통합교실

<안녕, 내 뻐끔거리는 단어들>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통합 수업'이라고 부르는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웬지 그 수업이 재미있을 것 같았다. 나는 그동안 '정상'이라고 불리는 아이들과 함께 어딘가에 속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그 수업은 나처럼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정상'인 아이들과 함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정상? 그런데 그 '정상'이 뭔데? 흥!

(나) "어떤 사람은 치아 교정기를 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목발을 대기도 하고, 부목만으로는 안 되는 사람들은 휠체어가 필요하고, 보행 보조기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너는 운 좋게 치아만 엉망인 거야. 그걸 기억하라고."

(다) 나는 하고 싶은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입력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말하도록 버튼을 눌렀다. / "안녕, 아빠. 안녕, 엄마. 전 지금 정말 행복해요."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코가 빨개졌다. 엄마는 부드럽고 따스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난 지금까지 엄마, 아빠에게 어떤 말도 직접 해 본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그래서 버튼을 누러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러나 한 번도 말할 수 없었던 그 말을 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엄마는 결국 눈물을 쏟으며 아빠를 꼭 붙잡았다.

아빠는 코를 훌쩍이면서 그 모든 일을 캠코더로 찍었다.

1) (가)에서 멜로디가 통합교실 수업을 기다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

2) (나)에서 브이 아줌마가 클레어에게 한 말을 직설적으로 표현해보세요.

⇒

3) (다)에서 멜로디가 메디토커로 처음 한 말을 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짐작해보세요.

⇒



안녕, 내 뻘뻘거리는 단어들 (7단계_중학)

뜨인돌 | 샤론 M.드레이퍼 글 / 최제니 옮김



메디토커 엘비라

<안녕, 내 뻘뻘거리는 단어들>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엘비라 덕분에 나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때 어려움 없이 답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때 어려움 없이 답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선생님들은 내가 답을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적당히 짐작하여 성적을 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처음으로 내가 제출한 답을 가지고 성적을 받게 되었다.

(나) 하지만 쉬는 시간이면 여전히 홀로 앉아 있는 때가 많았다. <중략>

남자아이들이 시시하다고 무시하기도 하는 그런 소소한 일들을 가지고 나와 같이 수다를 떨어주는 여자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방과 후에 보자는 아이도 없었다. 생일파티나 밤샘파티에 나를 초대하는 아이도, 심지어 로즈도 마찬가지로였다.

(다) "오늘 시험에서 1등을 한 사람은, 만점을 얻어 초코바를 받게 될 사람은..."

선생님은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 "멜로디 브룩스다."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교실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어떤 환호도 없었다. 단지 못 믿겠다는 표정들뿐이었다. <중략>

"멜로디도 다 맞혔는데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었겠지? 그러니 다들 다음번에는 더 잘해 보자!"

모두 신이 나 소리를 질렀다. 나만 빼고.

1) (가), (나)에서 멜로디가 메디토커를 사용하면서 달라진 점과 달라지지 않은 점은 무엇일까요? 아래 빈칸에 알맞게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달라진 점	달라지지 않은 점
내용	㉠	㉡
이유	㉢	㉣

2) (다)에서 디밍 선생님의 말에 멜로디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



안녕, 내 뻘뻘거리는 단어들 (7단계_중학)

뜨인돌 | 샤론 M.드레이퍼 글 / 최제니 옮김



퀴즈대회

<안녕, 내 뻘뻘거리는 단어들>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하지만 텔레비전으로 보면 과상할 거야, 안 그래?"

클레어는 내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지 계속해서 그렇게 말했다.

나는 클레어의 말을 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젯밤에 몇 가지 대답을 미리 저장해 두었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에는 원래 특이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엘비라가 나 대신 말했다.

"그러니까 넌 걱정하지마, 클레어."

(나) "정말 딱 맞아요. 어찌 이리 잘 아세요?"

"우리 아들도 휠체어를 타거든."

폴이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말했다.

"난 러스티를 위해 짬 날 때마다 뭔가를 만든단다. 하지만 러스티는 네가 쉽게 하는 일도 못 하는 경우가 많지."

폴은 내 앞에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나와 눈을 마주쳤다.

"자, 그럼 이제 모두를 놀라게 하는 거야! 러스티가 너를 지켜볼 거야."

"좋아요!" / 나는 대답했다. / "러스티를 위해서!"

1) (가)에서 멜로디가 무례한 사람들을 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

2) (나)에서 멜로디의 퀴즈 대회 뉴스를 본 러스티가 댓글을 남겼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안녕, 내 뽀뽀거리는 단어들 (7단계_중학)

뜨인돌 | 샤론 M.드레이퍼 글 / 최제니 옮김



쌤통이다

<안녕, 내 뽀뽀거리는 단어들>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왜 아이들은 내게 전화를 안 한 걸까?

왜 아이들은 나를 아침 식사에 부르지 않았을까?

왜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될 수 없을까?

나는 결국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을 터뜨렸다.

(나) “선생님도 정말 바빴단다. 인원수도 확인해야 했고, 비행기 좌석도 확인해야 했어. 짐들도 혼자 처리해야 했단다. 그래서 아이들을 시켜서 너에게 전화하라고 했지. 로즈가 핸드폰에 네 전화 번호를 저장해 두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다) “어쨌든 너는 제시간에 못 왔을 거잖아 난...난 너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어.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아이들을 쳐다보는데...” <중략>

“나는 아이들을 쳐다봤어. 모두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어.”

(라) 볼품없는 트로피를 쳐다보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휠체어에서 떨어질 정도로 웃어 댔다. 손이 제멋대로 나가 트로피를 쳤다. 트로피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대로 산산조각 나 버렸다. <중략>

“쌤통이다!”

1) 다음 [보기]에서 멜로디가 퀴즈대회에 출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을 고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거를 써 보세요.

[보기] 멜로디 항공사 선생님 퀴즈팀

책임자	
근거	

2) (라)에서 “쌤통이다!”라고 말한 멜로디의 마음을 비유법을 써서 표현해보세요.

⇨



안녕, 내 배꼽거리고 있는 단어들 (7단계_중학)

뜨인돌 | 샤론 M.드레이퍼 글 / 최제니 옮김



창의력/표현력 쑥쑥 키우기

1) 멜로디처럼 자신의 모습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 소개해 보세요. (책이나 영화 속의 등장인물, 뉴스나 신문 매체에서 본 인물도 가능합니다.)

⇨

2) 멜로디가 'TED'에 출연 요청을 받았다면 어떤 내용으로 강연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멜로디가 되어 강연 내용의 개요를 짜 보세요.

[조건] 단어에 관련된 것. / 퀴즈 대회 경험을 예시로 쓸 것.

제목		
처음	발단	
가운데	전개	
	절정	
끝맺음	결말	



안녕, 내 뻘뻘거리는 단어들 (7단계_중학)

뜨인돌 | 샤론 M.드레이퍼 글 / 최제니 옮김



정답과 해설

1쪽	1) (예) 금붕어처럼 입만 뻘뻘거릴 뿐 말을 할 수 없다. 2) (예) 수백만 개쯤 3) (예) 답답함, 외로움, 슬픔
2쪽	1) ② 달팽이처럼 느린 말투 ③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④ 짜증이 머리끝까지 났어. 2) ①-㉠ ②-㉡ ③-㉢ 3) 주인공은 거동이 불편하고 말도 할 수 없다.
3쪽	1)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말할 수 없다. 2) 동정하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관계 3) 수많은 단어카드로 문장을 만들 수 있게 해주었다.
4쪽	④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주는 사람 ②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 편견이 없다. ③ 브이 아줌마, 캐서린 ㉠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다. ㉢ 디밍 선생님, 클레어
5쪽	1) 정상이라고 불리는 아이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2) (예) 사람들마다 불편한 점이 다른 것뿐이야. 네가 치아만 교정하면 되는 걸 행운으로 알아라. 3) (예) 멜로디의 마음을 알 수 있어 다행이다. 그동안 말하고 싶은 것을 못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6쪽	1) ① 학교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②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어서 ㉠ 여전히 친구들과 어울리기는 힘들다. ㉡ 멜로디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멜로디는 일상적인 대화 주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예)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는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실망한다.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절망감에 빠진다.
7쪽	1) 대답을 미리 준비했다. 2) (예) 멜로디, 퀴즈대회 준비는 어떻게 했나요? 나도 퀴즈대회에 출전하고 싶어요. 비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결승전에서도 꼭 우승하세요.
8쪽	1) 생략. 2) (예)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속이 시원하다.
9쪽	(1) (예) 닉 부이치치 : 팔과 다리 없이 태어났다. 희망의 아이콘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도하는 강사로 살아가고 있다. 2) 생략.